



16면

민선8기 부안군수 취임 100일간의 소회

전주매일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음 9월 24일) 제31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통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수소산단 조성, 필수불가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 관련기사 3면

권요안 도의원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
도내 수소차 대비 충전소 부족 등 공급체계 문제도 지적
김관영 도지사 “산단 지정 등 적극 노력할 것” 답변



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수소 공급체계가 도내 지자체로 하여금 수소서비스보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전북도의 수소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더불어민주당·완주) 의원은 18일 3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전북도 차원의 사활을 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령과 창원, 청라, 여수 등이 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뛰어들어 전북은 마지막까

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수소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과 전후방기업 유치를 위해 완주 수소 국가산단 지정은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수소공급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수소시험도시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전북이 수소공급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벌어진 촌극이 아닐 수 없다”라면서 전북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수소차는 버스 28대를 포함해 총 1,500대가 넘지만 충전소는 고속도로 2곳을 제외하면 5곳에 불과

지난달 전주시는 전기버스 구매를 추진했으나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여론 악화와 시의회의 반대로 결국 버스 도입이 무산됐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두고 권 의원은 “전북 상용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항토기업 육성과 동떨어진 지자체의 상식 밖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수소버스 도입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수소산단 지정과 수소버스 보급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수능 D-30...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총력

도, 시·군과 함께 자체예산 60억원 투자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촉시설까지 확대

전북도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7월 1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이미 건축된 기촉 시설까지 확대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일 때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100세대 이상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차단위 구획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촉건물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중 공공건물·공공주차장은 20%, 공공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

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전용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촉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건물(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나, 유예기간 후에도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매년 충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강해원 환경복지국장은 “기촉시설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27일부터 30일까지

장수군의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을 활용한 RED 푸드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테일 쇼와 한우 육전 등 레드푸드 요리 런칭쇼, 오사토를 찾아라, 룰렛 이벤트 등 레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예술교육 방향 공유

전주시, 20~23일 '전주예술놀이축제' 개최
시민 참여 확대 위한 다채로운 체험행사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예술놀이, 감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2022 전주 예술놀이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예술이 놀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예술놀이 국제포럼 중심의 행사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충해 축제형식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4일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제 컨퍼런스 △광역 네트워크 포럼 △개막행사 등 다양한 예술놀이교육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먼저 첫째 날인 오는 20일에는 한



국(전주)과 호주, 영국, 브라질 4개국의 전문가들이 '예술놀이, 감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각각의 예술놀이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회복과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제4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 2022 가을·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 오는 21일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잃어버린 감각'을 주제로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전문가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 참여형 예술놀이 워크숍 등을 펼치는 광역네트워크 포럼이 열린다. /김재훈기자

전북권 4대도시로응비하는 김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민생복지 경제활력

축! 전주매일 창간